

“이중 스파이 소재 영화 ‘반신반의’ 남북분단 조명”

문화전당 '파킹찬스' 전 시네마 토크 참석한 박찬욱·찬경 형제

박찬욱 감독과 박찬경 작가 형제가 지난 6일 광주를 찾았다. 오는 7월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파킹찬스'(PARKing CHANce) 전 '시네마 토크'를 위해서였다. 이번 전시에서 만나는 작품은 단편영화 6편과 박 감독의 미공개 사진, 뮤직비디오 등 다채롭다. 전당과 함께 제작한 신작 '반신반의'를 비롯, 전시작 중 상당수가 남북 문제를 다룬 작품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영국 BBC에서 10월 방영될 6부작 드라마 '더 리틀 드러머 걸' 촬영을 마치고 이틀전 귀국한 박감독과 뉴욕 티나 김 갤러리 개인전을 앞두고 있는 박 작가를 만나 나누는 이야기와 김성원 아시아문화원 전시사업본부 예술감독이 진행한 '시네마 토크' 내용을 함께 엮었다.

“공동경비구역 JSA” 찍을 때 비해 남북관계 꿈만 같아

“영국 BBC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북미정상회담 등 화제

- '반신반의' 등을 찍을 당시와 지금 남북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해외 촬영장에서 관심이 많았을 듯하구요.

▲81회화 촬영을 마치고 프라하에서 종파티가 열린 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걱정 때문에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죠. 불안한 마음도 많았구요. 촬영 현장에서 다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번 회담을 다른 영화를 안만드냐는 질문도 받구요. 우리끼리 트럼프 역을 누가 하나 농담도 했죠. '공동경비구역 JSA'를 촬영할 때가 2000년이었죠. 당시에는 국가보안법이 서슬퍼렇게 작동하던 때였습니다. 비장한 결심을 한 채 촬영했고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했죠. 개봉 무렵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던 기억이 생생한데 '반신반의'를 상상하는 지금 또 이런 일이 생기네요. '반신반의' 제작 당시에는 미사일 쏘고,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죠. 지금 현실이 꼭 꿈만 같은데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있습니다.

- 이번 전시는 모니터로 상영되는 '공동경비구역 JSA'로부터 시작해 황폐화된 'JSA' 세트장을 활용한 '격세지감'으로 이어집니다.

▲'JSA'는 한국에서의 삶을 직접적으로 밝힌 작품입니다. 최근 외국에서 지내면서 격변하는 정세를 바깥에서 지켜볼 기회가 많았는데, 한국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한국영화는 어떤 소재로 작업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때면 분단 문제를 빼놓고는 답이 안되는 것을 실감합니다. 현재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분단이라는 사실이죠.

▲'격세지감'은 까르띠에파운데이션의 지원작입니다. 남양주 'JSA' 세트장이 헐릴 수 있다는 이야길 듣고 없어지기 전에 뭔가를 찍고 싶었어요. 당시 남북관계도 심상치 않았구요. 영화 세트라는 공간을 다루는 컨셉이니 3D로, 공간감을 가지고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박찬경)

▲입체영화에 관심이 많아 '이가씨'도 3D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열쇠 구멍이나 문틈으로 훑어보는 과정이 훨씬 실감나지 않을까 생각했죠. 같은 상황을 하나의 입장, 아가씨 입장에서 각기 다른 시각으로 입체감을 쥐 촬영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구요. 영화라는 게 세트를 만들고 진짜인것처럼 속여가며 촬영을 하는데 '격세지감'은 세트라는 걸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가짜

리움 자체를 주제로 삼아서 만든 영화입니다. - '반신반의' 이중스파이는 어디서 착안했나요.

▲조사를 해보니 탈북자도 많고 생각보다 쉽게 남북을 오가더군요. 상당 부분 사실에 기초한 작품입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북의 취조실이 나오는데 남북을 쉽게 왔다갔다하는 이야기, 연동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만화같은 부조리한 이미지도 강조했구요. 상영관 뒤에 영화 속 취조실과 똑같은 세트틀 만들었는데 영화처럼 남북을 왔다갔다 하는 물리적 체험을 제공해 관객이 현장감을 느끼길 바랐습니다. (박찬경)

▲고등학교 때 '추운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를 읽고 첩보영화를 꼭 만들고 싶었어요. 이번 영국 드라마도 첩보물인데 '반신반의'까지 두편을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네요. 스파이에 관심이 가는 건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실재고 연기인지 이런 종류의 질문이 가장 극적으로 구현되는 게 스파이, 이중간첩이라는 존재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스파이 이야기는 여러가지 층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스파이에 국한되지 않고 무엇이 진실인지, 실존적인 고민을 담은 이야기죠. 한반도는 상업적인 첩보영화 소재로는 세계 최고지만 밀접한 이야기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오히려 감이 안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래된 숙제죠.

- 박 작가님은 이번 전시작 '소년병'을 비롯해 분단 문제를 꾸준히 다루고 계시는데요.

▲북한이라고 하면 너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만 떠올리는데, 그들에게도 일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소년병' 작업을 했어요. 북한을 평화롭고 아무 걱정 없는 상황으로 묘사하는 게 더 불온하게 느껴지는 부조리함에 대한 생각거리도 던지고 싶었구요. 저희는 반공 교육 영향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분단 문제는 다들 수박에 얹고 안 다루는 게 이상하죠. 앞으로도 이 작업은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찬경)

- 박 감독님의 사진 작품중 대상을 흐릿하게 촬영한 '미술관 시리즈'가 눈에 띄네요.

▲제가 다른 대상이 서양미술관인데 서양미술에서 등장하는 아름다움의 표준이라는 게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데서 파생된, 죽어있는 것같은 느낌이



지난 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파킹찬스' 전 시네마 토크에 참여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박찬욱(오른쪽) 감독과 박찬경 작가가 영화 '반신반의' 취조실이 설치된 전시장에서 포즈를 취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었어. 화석이 된 느낌이었을까. 시대를 뛰어 넘어서 나라는 사람이 그런 작품을 만났을 때 나에 의해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는 것,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작품이 달라지는 것, 같은 작품이면서도 또 다른 지점을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사진을 꾸준히 찍어왔고 늘 사진기를 챙기죠. 여행을 즐기는 성격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만 직업상 여러곳을 다녀야해요. 사진찍기는 내키지 않는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보람을 찾으려는 안간힘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들어가 보면서 독특한 시각으로 사물을 볼 때 파장은 것같은 풍경이나 물건이 저의 이상한 시각이나 이상한 관심을 만났을 때 생명력을 갖게 되는 그 순간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진은 제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저만의 은밀한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 '이가씨'의 경우 사진집도 내셨습니까.

▲사진이 좀 모아지면 10년 정도 후에 배우들 사진만으로 책을 내거나 전시를 하고 싶어요. 촬영 현장에는 스틸기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과는 다른, 감독만이 찍을 수 있는 배우의 어떤 모습이 있지요. 배우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순간을 잡을 수 있겠고, 저만이 발견하는 배우의 매력을 앵글에 담을 수도 있죠.

박 감독은 노트북을 꺼내 '더 리틀 드러머 걸' 촬영현장에서 찍은 여배우 사진을 보여주었고 이야기는 '신작 드라마'로 자연스레 옮겨갔다. '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의 존 르카 작품을 원작으로 한 이번 드라마에는 '레이디 맥베스' 플로렌스 퓨와 아카데미 연기상에 두 차례 노미네이트된 마야를 새

넌이 출연한다. ▲1979년 팔레스타인 분쟁을 소재로 유럽에서 벌어지는 첩보 드라마입니다. 촬영하며 거의 죽다 살아왔어요. 지난해 칸영화제 끝나자마자 각본을 쓰기 시작해 9월부터 유럽 로케이션 하며 영화를 찍었죠. 자는 시간 빼고 한 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캐스팅이 잘 되서 행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배우들이 촬영하며 서로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며 보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진보적이어서 양국 배우들이 서로 적대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만나서 함께 연기를 하며 서로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했죠. 그 배우들은 촬영하며 결핍하면 울었어요. 자기 나라의 절박한 상황을 연기하는 장면에서 많이 울고 그랬죠.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점이 영화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철학과에서 배운 것은 어떤 '태도'에 가깝죠. 사상가들의 공통점은 자기 생각을 적당한 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어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까지 가려고 하는 것, 논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끝없이 밀고가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그런 단계에 이른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합니다. 흡혈귀, 소녀 성장 이야기, 분단, 동성애 등 어떻게 작품을 규정하든지 간에 하나의 이야기거리, 생각이 있으면 철저히 하려하죠. 대중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월요일 휴관. 티켓 가격 일반 3000원. ('베트남에서 베를린까지' 전 동시 관람)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발레단 발레 갈라 콘서트

15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광주시립발레단(사진)의 '발레 갈라 콘서트# 4. 백조의 호수 프리뷰'가 15일 오후 7시30분, 16일 오후 3시, 2회에 걸쳐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발레 갈라 콘서트'는 시립발레단 41년 역사 동안 쌓아온 역량을 선보이는 2018년 수시공연 시리즈다.

이번 공연은 다가오는 7월 13일-15일 공연을 앞두고 있는 시립발레단의 제122회 정기공연 '백조의 호수'의 하이라이트들로 구성된 프리뷰 콘서트이다.

세계 발레 거장인 안무가 유리 그레고로비치와 워싱턴 발레단에서 활약하는 프리마발레리나 이은원, 국립발레단 간판 무용수인 이동훈 수석 무용수, 러시아 유리 그레고로비치 사단이 출연하는 '백조의 호수'를 이번 공연을 통해 먼저 만날 수 있다.

'백조의 호수'는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서정적인 음악과 운명을 거스르는 사랑 이야기로 구성된 전세계 발레 팬들로부터 100년 이상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 클래식발레의 대명사로 통하며 '잠자는 숲 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로 통한다.

또한 공연이 시작되기 전, 최태지 감독이 해설자로 나서서 '발레 토크, Talk!' 토크 콘서트 프로그램을 통해 '백조의 호수' 감상법을 소개하며 발레 작품을 즐기는 다양한 시선을 제안한다. 전석 1만 원. 문의 062-522-8716. 062-613-823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통혼례 주인공 찾습니다 '대춘서 향약과...' 20일까지 모집

'대춘에서 향약과 놀자'가 6월달 문화가 있는 주간인 30일에 열리는 전통혼례식의 주인공을 찾는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시 남구 대춘동과 칠석동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행사다.

모집기간은 20일 오후 5시까지이며, 전통 혼례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내부 심사를 통해 한 쌍을 선정, 혼례를 치러줄 예정이다. 신청은 성함, 연락처, 신청이유를 작성해 이메일(daechontour_18@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676-384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